LITTLE TRIP / 여행 스토리북

경주, 두 야경 사이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같이 걸어 보자.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조금 더 쉬어 가도 좋아.



여행 방식
가족과 당일 저녁 산책

예시 시간
17:00 - 20:30

고른 여행지
2곳 · 식사 1회 · 숙박 없음

여행 이름
_____

> 완성된 여행책의 구성과 편집 결과를 보여 주는 공개 샘플입니다. 개인 여행 일정이 아닙니다.
> 날짜·방문·식사·이동시간은 설명용 예시이며 실시간 길찾기나 운영시간 점검을 거친 일정이 아닙니다.
> 계절에 따라 해가 지는 시각이 달라요. 방문 전 운영시간·입장 조건과 실제 이동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우리 일정

시간	일정	구분
날짜 미정 · 당일 예시		
17:00 → 18:00	**저녁식사 · 식당은 직접 선택** 동궁과 월지 주변에서 식사하는 예시입니다.	식사
18:00 → 19:00	**경주 동궁과 월지** 연못 둘레를 천천히 걸으며 건물과 물에 비친 모습을 살펴봐요.	관광
19:00 → 19:30	**다음 장소로 이동** 도보 이동 30분을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이동시간은 방문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동
19:30 → 20:10	**월정교** 강을 잇는 다리의 구조를 보고, 안전한 관람 자리에서 사진을 남겨요.	관광
20:10 → 20:30	**쉬며 오늘의 기록 남기기**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를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요.	여유

01 경주 동궁과 월지

연못 바닥에서 되살아난 생활



사진 · little trip 직접 촬영

동궁과 월지에서는 물에 비친 모습만 보고 지나가기 아까워. 이곳은 신라 왕궁과 이어진 별궁 터로, 귀한 손님을 맞고 왕실의 행사를 열던 공간이었단다. 기록에는 674년에 연못을 만들고, 뒤에 동궁을 지었다고 전해. 나라의 큰 일을 맡는 곳 가까이에서도 물과 섬, 건물을 함께 꾸미려 했던 거야.

연못의 가장자리는 곧은 선과 굽은 선이 어우러지고, 안에는 사람이 만든 섬이 있어. 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시설도 조사되었지.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물을 어떻게 모으고 움직일지 생각한 손길이 숨어 있었던 셈이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윤곽을 살펴보고, 안내도에서는 연못 전체의 모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찾아보렴.

더 작은 이야기는 물속에서 나왔어. 발굴 때 그릇과 기와, 나무로 만든 물건처럼 생활의 단서들이 많이 발견되었단다. 그래서 월지는 왕과 왕자 이름만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왕궁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쓰고 어떤 공간을 꾸몄는지 알아보는 창문이기도 해. 옛 이름인 안압지와 월지라는 이름도 같은 장소를 가리키니 헷갈려도 괜찮아. 아빠와 오늘은 연못이 들려주는 두 이야기를 찾아보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땅과 물 아래 남았던 생활이야.

>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월지는 674년 조성 기록이 전하는 궁궐 연못으로, 동궁과 함께 왕실의 생활과 손님맞이를 보여 주는 유적이다. 직선과 곡선의 호안, 인공섬, 입출수 시설에서는 정원을 꾸미고 물을 다루는 기술을 읽을 수 있다. 연못에서 나온 생활용품은 풍경을 누렸던 사람들의 일상으로 시선을 넓혀 준다. 아이와 눈에 보이는 정원과 발굴품이 알려 주는 생활을 함께 연결해 보자.

찾아가는 곳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 (인왕동)

같이 해 볼까?
허용된 관람길에서 물과 땅이 만나는 윤곽을 살펴보자.

네 생각이 궁금해
연못의 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시설은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는 데 왜 필요했을까?

우리의 발견

짧은 글도, 작은 그림도 좋아.

02 월정교

사라졌다가 다시 이어진 다리



사진 · little trip 직접 촬영

남천 위의 월정교를 볼 때는 물 위와 아래를 나누어 보자. 돌로 된 교각이 다리를 받치고, 그 위로 나무 건축과 지붕이 이어져 있지. 다리는 예쁜 모양을 보기 위한 물건만은 아니야. 물길로 갈라진 두 편을 오갈 수 있게 해서 길을 하나로 이어 주는 시설이란다.

삼국사기에는 경덕왕 때인 760년에 궁궐 남쪽에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있어. 월정교는 월성과 남쪽 지역을 잇는 통로였지. 하지만 신라 때의 나무 다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은 것은 아니야. 다리가 사라진 뒤 남은 기초와 교각, 옛 기록을 조사하고 고증하여 다시 만들었고, 2018년에 복원을 마쳤단다. 우리가 보는 모습에는 옛 다리의 흔적과 오늘의 연구·공사가 함께 들어 있어.

그러니 돌 받침을 보며 알아낸 사실과, 그 위를 어떤 모양으로 되살릴지 판단한 부분을 구분해 보면 좋아. 옛사람이 정확히 어느 날 어떤 짐을 들고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다리가 두 지역의 이동을 도왔다는 기능은 생각할 수 있지. 아빠와 오늘은 다리가 없는 강과 있는 강을 머릿속에서 번갈아 그려 보자. 같은 풍경이라도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길은 얼마나 달라질까?

>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월정교는 남천을 건너 월성과 남쪽 지역을 이어 주던 다리로, 삼국사기에 760년 건립 기록이 전한다. 지금의 모습은 남은 기초와 교각, 옛 기록을 조사하여 2018년 복원한 결과다. 아이와 물길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을 바라보며 다리가 이동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자. 유적의 흔적과 현대 복원이 함께 있는 모습은 과거를 이해하려는 오늘의 노력도 보여 준다.

찾아가는 곳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74

같이 해 볼까?
안전한 관람 자리에서 강의 두 편과 다리 방향을 찾아보자.

네 생각이 궁금해
다리를 받치는 돌과 위의 나무 구조는 각각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

우리의 발견

짧은 글도, 작은 그림도 좋아.

가방에 쏙, 챙겨 갈 것들

기본 준비물 · 권장

- 휴대전화·충전기·보조배터리
- 편한 신발·개인 물병
- 예매한 티켓·예약 확인서

출발 전 날씨를 살펴보고, 필요한 것만 가볍게 챙겨요.

돌아오는 길에

오늘 어디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어?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하나씩 들려주자.

안내 정보와 예상 시간·요금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